

#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20

여름철 호우 편



## CONTENTS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호우사고

- SAFETY GRAPHIC

02

호우안전 안전지침서

- SAFETY MANUAL

04

안전을 책임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 SAFETY TIP

06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호우 안전사고 현황

# 여름철 쏟아지는 비, 안전을 위협하는 '호우'

자료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54%를 차지할 만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특히, 2023년에는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이 1,018.5mm로 평년(727.3mm)보다 많아 1973년 이래 5번째로 높았고, 세종시 지역에도 지난 여름철에 48회의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등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 다양한 피해로 재산·인명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호우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호우특보란?

#### 호우예비특보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리라 예측될 때

#### 호우주의보



3시간 강수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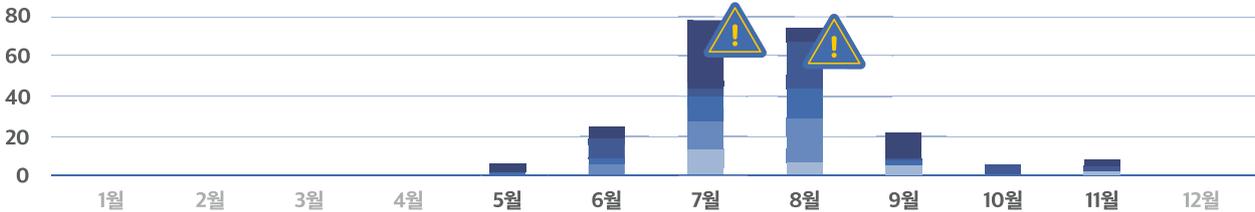
#### 호우경보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기상청은 예비특보와 기상특보를 통해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호우 예비특보는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호우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구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줍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호우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하며, 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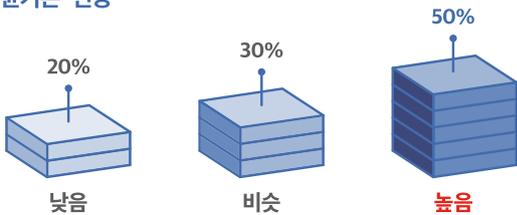
### 세종시 5년간 월별 호우 특보 발표



최근 5년간 세종시는 5월부터 11월 사이에 호우특보가 발표되었고, 특히 여름철인 7, 8월에 호우특보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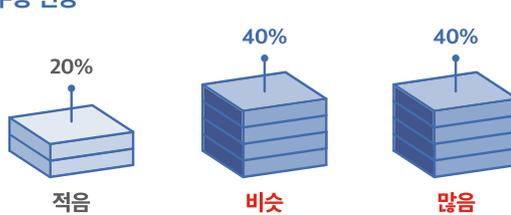
### 2024년 우리나라 여름 기후 전망

#### 평균기온 전망



평균기온은 평년 (23.4~24.0°C)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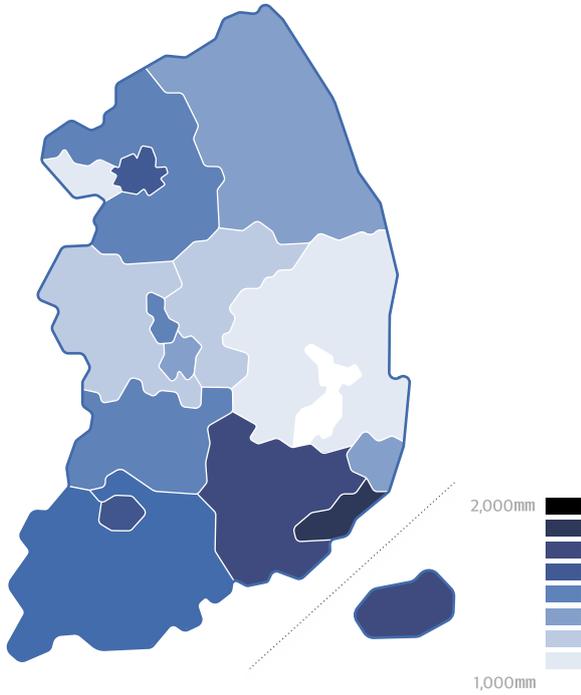


강수량은 평년 (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지역 차가 크겠습니다. 여름철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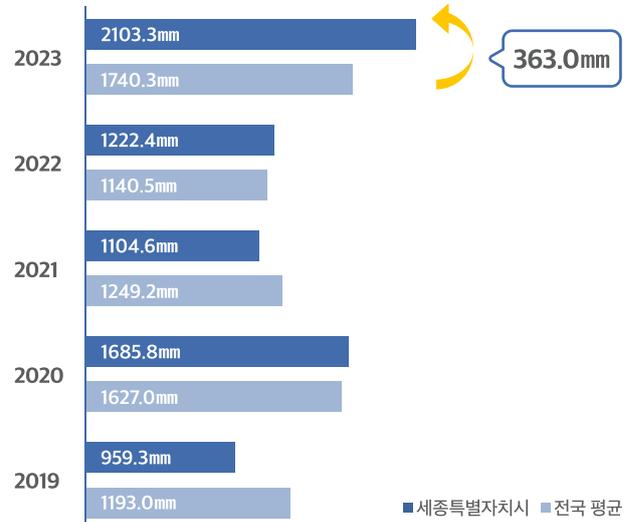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 (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 평균기온-강수량 전망의 괄호 안의 숫자는 평년비슷범위를 의미합니다.

### 시도별 5년간 평균 강수량과 세종시의 강수량

시도별 5년간 평균 강수량(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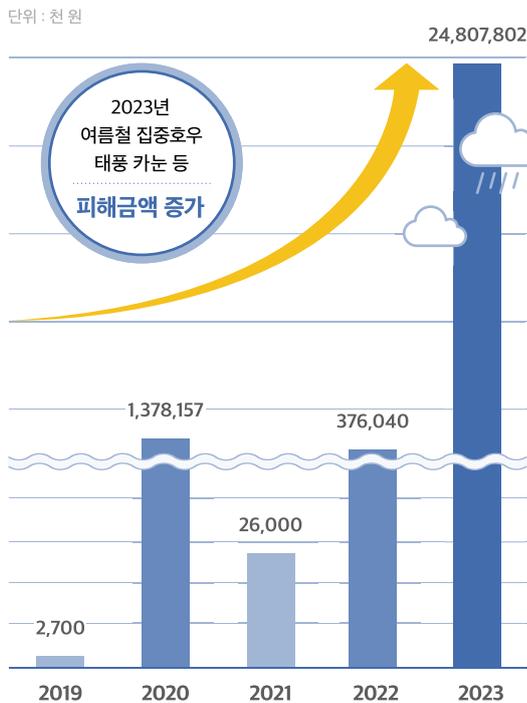
세종시와 전국 평균 강수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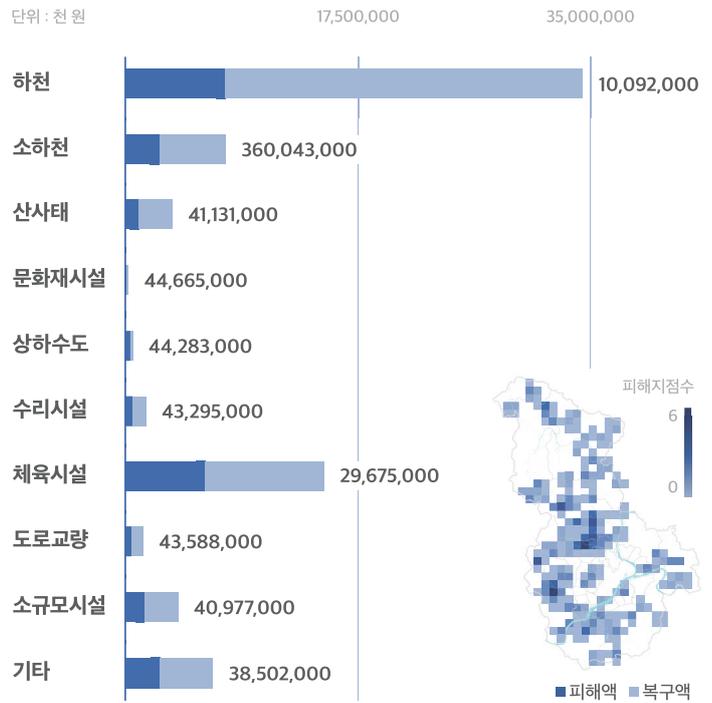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연간 강수량은 제주도, 부산시,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충청권의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202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363.0mm 많은 210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 세종시 5년간 호우피해

최근 5년간 호우피해



2023년 공공시설물 호우피해



최근 5년간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누」로 인하여 약 248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는 세종시 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이 입은 피해는 약 229억 원 규모였고, 복구를 위해 투입된 비용은 약 548억 원 수준으로 총 7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름철 호우 안전하게 대처하세요

호우란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를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호우는 하천의 범람이나 도시·논밭을 침수시키고, 지반을 약하게 하여 산사태를 야기하거나 도로 유실, 옹벽 파손 등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갑자기 불어오는 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곳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1. '안전 디딤돌' 꼭! 설치하세요.



재난안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안전디딤돌' 앱으로 긴급재난문자와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재난뉴스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수신지역 설정을 통해 가족이 있는 지역의 정보도 받아볼 수 있어요.

## 3. 침수지역은 절대 접근 금지!



침수가 시작되거나 침수된 지역은 물의 깊이나 도로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부유물건 등 위험요소가 많아서 절대 접근하면 안돼요. 하수도, 맨홀 근처는 물의 역류와 추락으로 휩쓸릴 수 있으므로 접근하면 안돼요. 침수된 도로의 옥외 전기 시설물은 감전 위험이 있으니, 2~3m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 2. 캠핑은 안전지대에서, 대피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해요.



계곡, 하천 주변 등에서 캠핑을 한다면 지정된 안전지대에서 해야 해요.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캠핑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방송이 나온다면 집을 챙기는 것보다 사람 먼저 산등성이를 따라 대피해야 해요. 만약 계곡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유속이 빠르다면, 건너지 말고 119 구조 신고 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요.

## 4. 급경사지 가까이 가면 안돼요.



호우로 인해 비탈면으로 빗물이 스며들면 지반이 약해져서 낙석,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요. 옹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급경사지 주변으로는 가까이 가지 않고, 호우예보가 있다면 급경사지 주변에 파손될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 '여름철 호우 전·후 행동요령, 기억해주세요,' 미리 대비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요

### 호우가 오기 전에 꼭 대비하세요.

#### 1.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해요.

- TV, 라디오, 휴대폰 재난 문자, 스마트폰 앱(안전 디딤돌) 설치하기
- 거주 지역의 홍수, 침수,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 요인 미리 확인하기

#### 2.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계획을 세워요.

- 지역의 대피장소(행복센터, 학교 등)를 확인하고, 대피요령을 숙지해요.
- 대피 시 하천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침수된 지역은 피해야 해요.

#### 3. 주변의 시설물을 점검해요.

- 집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하고, 비가 새거나 막힌 곳을 확인해요.
- 비탈면, 옹벽, 축대 등에 균열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정, 또는 행복센터에 신고해요.

### 호우가 지나가면 꼭 확인하세요.

####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요

#### 2. 침수, 산사태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접근하지 않아요.

#### 3. 복귀 후 집과 주변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시청이나 행복복지센터에 신고해요.

#### 4. 호우로 범람한 물은 오염된 경우가 많으니 물과 접촉하지 않아요.

#### 5.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농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해야해요.

#### 6.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해요.

## 5. 지하에 물이 차면 즉시 대피해요.



호우가 시작되면 지하 (공간)에 물이 급격하게 차올라 수 있어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계단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 즉시 건물 2층 이상이나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해요. 혹시, 무릎높이 이상으로 침수가 되었다면 혼자서 출입문 개방이 어려우므로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개방하고 즉시 대피해요.

## 6. 하천, 저수지 접근금지, 낚시는 절대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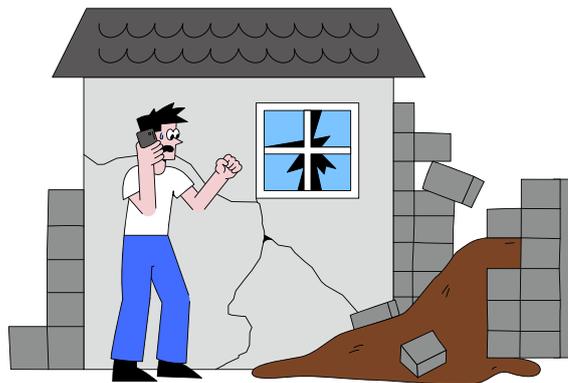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과 계곡은 물론, 저수지의 수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면 안돼요. 특히, 낚시를 하거나 물구경을 나와서도 안돼요. 낚시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대피하고, 늦었다면 장비를 두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해요.

## 7. 차보다 안전이 우선, 신속하게 대피해요.



호우가 시작되면 차 안도 안전하지 않아요. 도로나 하천의 세월교(침수교)는 침수가 시작되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므로 타이어의 2/3가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지하차도에 물이 고여 있다면 절대 진입하지 않고, 지하차도 진입 후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차량을 두고 신속하게 대피해주세요.

## 8. 비가 그쳐도 조심, 파손, 침수된 곳은 안돼요.



호우가 그친 후 집에 돌아오면 붕괴 가능성을 확인한 후 들어가고, 침수가 되었다면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하고 들어가야 해요. 호우가 그친 후에도 추가 붕괴나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도로나 옹벽 근처로 가서는 안돼요. 만약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 도로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세종시민의 참여로 더욱 안전하게

# 자율방재단 & 안전신문고

## 세종시 자율방재단, '카인드 (CAIND)', 재난현장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자원봉사단

주민보다 지역의 안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세종시 자율방재단 '카인드'는 예방부터 복구까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직접 재난현장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 자원봉사단입니다.

자율방재단  
'카인드'란?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원봉사단'으로,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약칭 'CAIND(카인드)'

- |   |  |
|---|--|
| <p><b>현황</b></p> <p><b>대상</b></p> <p><b>가입문의</b></p> <p><b>주요활동</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개 읍면동에 총 552명의 시민 참여 중이며, 2023년 517회 활동</li> <li>•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종시민 누구나</li> <li>•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li> <li>• 예찰활동 :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순찰, 재해위험요소 정비</li> <li>• 방재활동 : 재난발생현장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차량통제</li> <li>• 구호활동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지원</li> <li>• 응급복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li> </ul> |
|---|--|



## 위험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우리 동네 위험, 안전신문고로 해결해요.

주민보다 지역의 위험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위험,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안전신문고 App을 사용하면 휴대폰 인증과 사진 촬영·첨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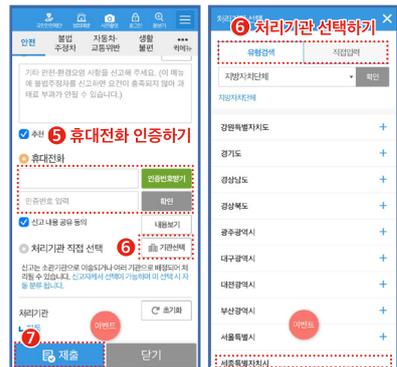
### 1. 안전신문고 실행하기



### 2. 신고 내용 작성하기



### 3. 신고 제출하기



세종시민을 위해 세종시가 다 책임질게요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 마음구호 프로그램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정부와 세종시가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개요**

-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자연재해보험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 행정안전부와 세종시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가입문의 & 신청**

- **가입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청 자연재난과 ☎ 044-300-3224
- **단체가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개별가입**: 7개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지원기준**

1. 주택 : 일반 73%,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100%
2. 온실 : 70%
3. 소상공인 상가·공장 : 55%

※ 재해취약지역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100% 지원

**대상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안내**

상품명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보상유형
주택·온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①	주택·온실	개별·단체	정액보상
단체가입주택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②	주택	지자체·단체	정액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③	상가·공장	개별·단체	실손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액보상\* 기준**

※ 대상 ① : 주택, 온실 ② : 단체가입주택  
보상비율 : 보험가입금액대비 보험금 지급비



**「마음구호 프로그램」**, 시민의 아픔 극복, 세종시가 돕겠습니다.

**개요**

-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단체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지원
- 상담활동가와 재난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교육·신체활동 제공
-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신청일정**

- 매월 1~7일 : 시청 홈페이지, SNS를 통해 신청자 모집 공고
- 매월 10~20일 : 신청자 모집 접수, 프로그램 대상자 확정 알림

**지원기준**

- 방법 1. '마음구호 프로그램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 방법 2. 세종시청 홈페이지 방문 (Sejong.go.kr)
- ※ '세종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청접수'에서 참가자 모집을 확인

**2024년 활동계획**

○ 상시 프로그램  
● 특별 프로그램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 여름철 쏟아지는 비, 호우 안전까지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요.

여름철 호우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자연재난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도로나 지하공간을 침수시키는 것은 물론, 불어난 강물에 시설이나 사람이 휩쓸려가거나 산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61.4%가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를 2022년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 2,08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사유시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약 1조 8,969억 원, 건물 약 1억 1,760만 원, 농경지 약 1억 909만 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83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85,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중 97.5%가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공공시설의 피해가 약 26.4억으로 가장 컸으나, 건물 5,513만 원, 농경지 3,349만 원, 사유시설 2,206만 원 등 시설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이전 연도보다 피해가 늘어나 1,247건, 약 24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우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예·경보를 통해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일기예보와 재난문자에 귀 기울이고, 배수로와 빗물받이를 청소하여 대비하고, 호우가 시작되면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한다면 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의 주제를 '여름철 호우'로 선정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안전 정보를 담았습니다. 안전 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의 스무 번째 이야기, '여름철 호우'편을 통해 세종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발행일 2024년 7월

문의 안전정책과  
044-300-3613~4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소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소,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